





## 안식휴가라는 주제로 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여수에서의 축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8월 12일 폐막식을 끝으로 93일간의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총 820만 명이 관람하면서 관람객 동원 면에서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과연 환경적인 면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람회가 쓰레기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살펴 본다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관람객들이 구경하고서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Big-O가 끝난 후의 해상무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사진 속으로 되돌아 본 우리들이 막다 버린 음모수, 깔고 앉다 버린 종이들이 환경적인 엑스포와는 이질적이다.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계획된 박람회였지만 바다를 죽이는 박람회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최근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여 목숨을 앓아간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지역 남해안도 많이 출현하고 있다. 독성이 강한 노무라입깃 해파리에 쏘이면 상처가 나고

치명적이다. 바다 수온이 올라 가다 보니 번식이 많아지고 지구 온난화가 한몫하고 있는데 쏘이면 붓는 부위에 식염수를 바르거나 바닷물로 계속헹구워야 한다.

### 김혜진의 자연이야기

곤충의 수와 종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곤충들의 산란 죽 알을 낳는 수도 수십에서 수백개를 낳습니다. 그런데 항상 곤충들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요, 그 많은 곤충들은 또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됩니다.

그중 대모벌을 소개 합니다. 대모벌은 거미를 사냥한 후 사냥한 거미를 침으로 마취를 시키지요, 그리고 작은 꿀을 파서 거미의 몸에 산란을 한후 그 구멍을 메웁니다. 그러면 알에서 깨어난 대모벌의 유충은 거미의 체액을 먹으며 안전한 굴에서 자라지요. 대모벌은 이렇게 거미의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안식휴가를 마치고 - 강홍순 -

**1. 16년만의 외출**  
1996년 2월 여수 - 여천해양오염대책본부(씨프린스호 사고) 간사를 시작으로 6년간의 파견(전남환경연합, 순천환경연합, 아름다운여수21)을 포함하여 16년간의 실무를 잠시 접고 안식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조건의 한계와 준비가 부족해 자랑할 만한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만 꼭 해보고 싶었던 짐짓기, 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기, 아이들과 놀아주기, 짝꿍기 등 나름대로 잘 놀고, 잘 쉬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나름 알찬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 생애 또 이런 기회와 시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활동조건과 재정상황에서도 시간을 배려해주신 조직과 회원님들, 심시일만 도움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한옥학교에서의 3개월**  
안식휴가의 시작과 함께 집 싸들고 찾아간 청도한옥

제8회 해양환경보전의 날 특집

## 해양쓰레기 분석결과서

여수환경운동연합 해양환경위원회

- 조사일시 : 2012.7.23.일 월요일
- 조사장소 : 전남 여수시 월호도 밀진포 해안
- 조사인원 : 여수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여수 21, 여수시여수산당공동발전협의회 약 40명
- 날 씨 : 맑음
- 조석 : 만조 11:37(299), 간조 17:36 (70)(화태도), 음력 6월 5일
- 조사지역 : 5m\*80m(400m2) 대표지역으로 4m\*5m를 대표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음.

### 1. 조사개요

연안에 표착하는 부유쓰레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 7월 23일에 전남 여수시 월호도 밀진포 해안을 대상으로 정화활동과 쓰레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참여인원은 약 40여 명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며, 자발적인 참여자들로 구성되었다. 조사의 목적은 여수지역에 분포하는 쓰레기의 성상 및 기원분류 등을 통해 표착쓰레기의 유입경로와 기원을 추정하고 앞으로 지역차원의 대책이나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1. 조사대상지역(월호도, 밀진포) 위성사진

### 3. 조사결과

성상별 분류	측정량 (kg)	환산량 (kg)	비율 (%)	성상별 분류	측정량 (kg)	환산량 (kg)	비율 (%)
로 프	11	220	31.0	비 닐	1	20	2.8
나 무	10	200	28.2	고 무	1	20	2.8
플 라 스틱	5	100	14.1	금속(철재)	1	20	2.8
스티로폼	2	40	5.6	종 이	1	20	2.8
의류 및 천	2	40	5.6				
유 리	1.5	30	4.2	전 체	35.5	710	100.0

표 1. 대상지역 표착쓰레기의 성상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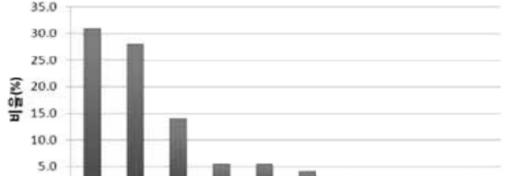


그림 2. 표착쓰레기의 성상별 비율

학교에서의 생활 3개월은 한 번도 밭 디던 적 없는 타지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생활하며, 나름 힘든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저에게는 꿈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갑이 지난 63세 퇴직 공무원, 고건축을 배우기 위해 일반 유학을 준비 중인 23살 여학생, 8년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31살 가장, 농고를 나와 농사일과 건설노동자로 일하다 온 45살 노총각 등 이력과 사연들이 다양한 25명의 동기들과 함께 24시간을 꼬박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하다보니 한옥에 대한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관계와 사람에서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시민운동 16년, 머리와 팔로만 일들이 많았다는 생각에 무언가 머리가 아닌 몸통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배워보고 싶어 많은 고민 끝에 찾아간 한옥학교는 무거운 통나무를 나르고, 아저 익숙하지 않은 공구를 사용해 자르고 깎고,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몸으로 익히는 무언가가 있어 뿌듯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느끼는 것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3개월 만에 학교를 수료하고 현장으로 가서 무더위

속에서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동기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도 작업복입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25명의 동기들과 집을 짓고, 기초를 놓고, 나무를 자르고, 깎고, 다듬고, 짜 맞추어 집을 지었던 3개월의 경험은 앞으로 저의 삶에 좋은 거름이 될 것입니다.

### 3. 아이들과 어울리기

한옥학교 수료 후 계획했던 환경재단의 임직진스쿨 시민단체활동가 리더십교육이 연기되어 어쩔 수 없이 미루고 나머지 3개월은 세 명의 아이들과 놀고 어울리기에 충실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리산, 백운산, 응천 등으로 4차례 캠핑을 다녔고 마침 걸친 엑스포도 전기간만큼 요즘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다녀왔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라는 것 보다는 그냥 아이들과 함께 놀고 여행하며 부대끼고 싶었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와 다니는 놀이와 여행이 조금은 낯설고 불편했었지만 함께 텐트치고 밥하고 놀아준 아빠

### 4. 환경운동연합과 강홍순의 삶

복귀 1주일을 앞두고 준비할 것도 있고 해서 연습 삼아 사무실에 나갑니다. 돌이 남아 셋이 했을 때도 벅찬 일을 하고 있는 문갑배 국장과 정비취간사를 보면 미안함이 앞섭니다. 더불어 회원님들과 임원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과 함께 혼자 잘 놀고 온 미안함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애정과 활동, 앞으로 강홍순의 삶이 항상 더불어 함께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기회를 주신 회원님들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다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거된 해양부유쓰레기를 육상기원과 해상기원으로 분류하였다. 육상기원이 약 65.1%, 해상기원이 34.9%를 나타냈다. 육상기원의 쓰레기 비율이 해상기원쓰레기의 1.8배에 달했다. 표착쓰레기(부유성)의 상당량은 육상으로부터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상별 분류	측정량(kg)	비율(%)
육 상 기 원	23.1	65.1
해 상 기 원	12.4	34.9
계	35.5	100

표 2. 대상지역 기원별 분류



그림3. 대상지역 기원별 비율

해양쓰레기의 경우 무게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쓰레기의 밀도를 고려하지 않아 수거계획을 세우는데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어 동시에 개수 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어구나 기타 보관용으로 사용되었던 스티로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의 물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부서져 그 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에서는 크기가 5cm 이상의 개체를 하나로 구분 했으며, 로프는 10cm 이상의 것을 하나의 개체로 간주하여 조사하였다.

성상별 분류	개수	환산량	비율 (%)	성상별 분류	개수	환산량	비율 (%)
스티로폼	106	2120	26.6	유 리 병	11	220	2.8
플라 스틱	71	1420	17.8	부 이	10	200	2.5
로 프	65	1300	16.3	천	8	160	2.0
페 트 병	31	620	7.8	철 캔	6	120	1.5
목 채	24	480	6.0	철 뚜 껑	6	120	1.5
비 닐	20	400	5.0	고 무	5	100	1.3
대 나 무	19	380	4.8				
장 어 통 발	16	320	4.0	T o t a l	398	7960	100

표 3. 표착쓰레기 구분별 분포비율

### 4. 결론

일반적으로 육상기원의 쓰레기 비율이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상지역의 육상기원쓰레기의 경우 65%를 차지하고 있어 소폭 낮은 점유율이지만, 상대적으로 해양활동(레저)과 육상으로부터 유입하천의 영향이 적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독특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수거된 쓰레기 중 로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거된 로프의 주요사용처는 그들의 흔적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어로행위과정에서 버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박에서 작업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의 로프를 바다로 투기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골칫거리는 부

피가 크고 바람이나 해수에 의해 쉽게 이동하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부유성쓰레기의 대표적인 성상인 스티로폼이라고 할 수 있다.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해양에서 분해속도도 느리고 지속적으로 남아 어류와 조류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사대상지역에서도 높은 비율로 수거되는 스티로폼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수환경운동연합회원, 여수시-여수산당공동발전협의회, 아름다운여수21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2011, 해양폐기물 분포파악을 위한 어구실태조사  
홍중욱, 2007, 육상기원 해양쓰레기 관리 분담방안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 2007-12  
환경부, 2008, 5대강 유역 하천(編)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재동결, 2011. 해양쓰레기로 인한 어업자원관리 문제와 피해 저감 방안, 수산자원관리, (1), 125-134.

-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

##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해

- '함께 사는 길'을 읽고 -

### 여수공고중학교 박상욱

작년 3월 일본에서 지진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그 일로 일본 전체는 충격에 빠지고 중국과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들어 피해를 보았다. 체르노빌 이후로 이 사건은 전 세계로 하여금 핵 발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도 이 사건을 접하고 핵이란 것이 때로는 유용하게 쓰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양면적인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지역의 일본 주민들도 처음에는 핵발전소 건립을 반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하다고 주민을 설득해서 건립했으나 결국엔 이런 참사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저 안타깝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핵발전소를 건립할 때 주민들이 반대했겠지만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여러 방법으로 설득해서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나는 작년에 원자력발전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안내원 분이 원자력 발전기는 수명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기 몇 개는 수명 연장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 고리 1호기는 원래 2007년에 폐쇄되었어야 했다. 그리고 생명 연장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편법을 써서 고리 1호기를 생명 연장시켰다. 하지만 그 뒤 고리 1호기는 눈에 띄게 사고율이 증가했다고 했다. 핵 발전이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까지 노후 된 원자력 발전기를 생명 연장 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도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후쿠시마 사건 이후 세계는 핵 발전의 위험성을 알고 핵발전소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노후한 7개의 발전소를 즉각 가동 중지시키고, 중국조차도 신규원전 계획을 중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흐름을 역류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고리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면 부산이 오염되는 데 불과 9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 사건을 접하고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많은 것을 느꼈다. 우선 우리나라의 핵 안전의식을 높이고, 발전기를 철저히 관리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엔 우리나라의 핵 안전의식을 그렇게 높이지 않은 것 같다. 바로 옆 나라에서 사고가 터져 우리나라에도 피해를 입혔는데, 우리나라는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핵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다 우리나라에 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도 하기 싫다.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핵에 대한 영상물 등을 보여주고, 핵에 대해 제대로 알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후된 발전기는 되도록이면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너무 핵 발전에 목숨을 거는 것 같다. 핵 발전 말고도 많은 친환경적인 방법도 많다. 풍력 발전, 조력 발전, 화력 발전 등 방사성물질을 내뿜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말이다.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제대로 된 핵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 7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면서 회원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님! 먼저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05년 여수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시작하고 2011년부터는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로 파견 근무하고 있는 송지훈 활동가입니다.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지나간 시간만큼 제가 한 일은 무엇이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하게 됩니다. 그 시간동안 저에게 남은 것은 아마도 '사람'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났고 지금도 앞으로도 연락을 하며 지낼 것 입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여수지역에 좋은 분들도 만났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연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큰밭이었다면 정리하는 계기는 셋째 딸입니다. 우리 3명의 딸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제 고향인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환경연합을 시작했습니다면 제 맘대로 되지 않았습디다. 아직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시간들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주도로 가지만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니다. 제주도에 한명의 활동가, 좋은 사람을 보낸다는 생각해주세요. 부족한 제가 회원님들께 부탁의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 조직입니다. 회원님의 참여가 환경연합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이 내주시는 회비는 여수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지는 않지만 회비 국장과 회원, 지인들을 소개시켜주시요. 활동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은 회원님이 채워주세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할 때 더 힘이 날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님과 함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여수를 떠나지만 마음만은 여수에 남겨두고 가려고 합니다.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같이 할 일이 있다면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걸어 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소중한 추억, 경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3명이었지만 이제 5명의 가족이 되어 서 떠났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받은 여수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져 잘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7월 31일 송지훈 활동가 드림.